

“조용필 위해 ‘그 겨울의 찻집’ 만들어”

원로 작곡가 김희갑

방복 공연...김정일 애창곡으로 화제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명곡 다량 탄생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조용필 씨가 (부르기 싫어) 피하려 했던 노래예요. 새로운 스타일의 곡이고 내레이션까지 무척 생소했으니까요. 기피하려는 것을 강요해서 완성한 기억이 나네요.”

‘가왕’ 조용필(68)과 콤비를 이뤘던 작곡가 김희갑(82·사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노래하는 가수도, 곡 만들고 가사 쓰는 사람도 힘든 과정에서 탄생한 노래”라며 웃음 지었다.

전설적인 명곡인 이 노래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란 파격적인 도입부 내레이션으로 기존 음악 문법을 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희갑은 부인인 작사가 양인자가 쓴 이 노래말에 대해 “양인자 씨가 자신의 일기장에 죽 적어온 인생관을 빚대어 표현한 가사”라고 말했다.

김희갑은 지난 9일 인터뷰에서 데뷔 50주년을 맞은 조용필과 작업하던 시절의 기억을 꺼내놓으며 “정말 ‘가왕’, ‘국민 가수’란 말이 제대로 불리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말했다.

김희갑은 1979년 조용필의 1집 수록곡 ‘잊혀진 사랑’을 시작으로 조용필과 작곡가-가수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부인 양인자와 함께 ‘그 겨울의 찻집’(1985), ‘킬리만자로의 표범’(1985), ‘바람이 전하는 말’(1985), ‘큐’(1989),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1989) 등 조용필의 명곡을 다량 탄생시켰다.

김희갑은 “나도 연주자였으니 조용필 씨와 작곡가로 만나기 이전부터 잘 알았다”며 “가요계 등단 때부터 알았으니 조용필 씨의 자작곡 ‘창밖의 여자’가 담긴 1집에 ‘잊혀진 사랑’을 수록했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애창곡이자, 지난 1일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서 조용필이 부른 ‘그 겨울의 찻집’도 김희갑의 손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1년 중국 연변에 갔을 때 이미 북한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른 것을 들었다”며 “그 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겨울의 찻집’을 좋아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기억했다.

양인자가 경북공의 한 찻집에서 가사를 썼다는 ‘그 겨울의 찻집’은 양인자가 집필한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가로, 김희갑이 조용필을 위해 만든 노래였지만 이 드라마 주인공인 왕영은이 먼저 불렀다고 한다.

“조용필 씨를 겨냥해 만든 곡이었죠. 그런데 일본에 가 있어 한국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왕영은 씨가 불렀고, 조용필 씨가 8집을 만들 때 녹음하면서 원주인에게 찾아온 거죠.”



김희갑은 조용필과 음악적인 실험을 거듭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함께 파격적인 곡으로 꼽히는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도 그중 하나다. 이 곡에도 내레이션이 담겼으며, 노래 길이는 무려 19분56초에 달한다.

그는 “대중가요에 없는 장르”라며 “조용필 씨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노력한 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희갑은 조용필이 보컬리스트이면서 작곡가로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조용필이 작곡하고 양인자가 작사한 ‘서울 서울 서울’은 당초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가 되려 했다가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로 결정되면서 조용필의 앨범에 수록됐다고 기억했다.

그는 “녹음할 때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 집중력을 다잡는 모습이 정말 특이했다”며 “록에 기반을 뒀지만, 명창에게 창까지 배우며 민요를 부른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장르를 부른 가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창밖의 여자’, ‘고추잡자리’, ‘꿈’, ‘간양락’ 등 조용필의 자작곡을 거론하면서 “그 자신도 정말 많은 곡을 썼다”며 “작곡가로도 정말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백년일꾼’

“현실 그 자체 적나라한 결혼생활 보여드려요”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14일 첫 방

민지영·박세미·김단빈 세 명의 시집살이

“남자들은 이해 못 해. 결혼 안 한 여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야.”

결혼 13일 차 새댁, 배우 민지영은 신혼여행 후 처음 방문한 시댁에서 남편 김형균에게 말한다.

오는 14일 첫 방송에 앞서 10일 언론에 선공개한 MBC TV 파일럿 교양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세 며느리의 다른 듯 같은 시집살이가 담겼다.

민지영은 친정엄마가 한껏 준비한 이차 음식에 눈물을 쏟고 시댁으로 출발했다. “착해 보이는” 화장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도착하자마자 “왜 결혼하면 시댁에서 자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준비에 나선다.

총출동한 시대 식구 중 남자들은 여유를 즐기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민지영의 시댁뿐만 아니라 주변의 흔한 풍경이다.

결혼 5년 차, 둘째 아들을 임신 중인 개그맨 김재욱의 아내 박세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만삭 며느리에게 명절 나기는 더 고되고.

시댁에서 손님도, 가족도 아닌 존재의 며느리는 부른 배를 안고도 첫째 아들을 돌보라, 차례 준비하라 정신이 없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말도 하나 있어야 하니 셋째를 가져라”고 한다. “저도 이제 일 나가야죠” 해도 돌아오는 답은 “애들 두고 일 다니면 너도 마음이 좋지 않아.” 소통은 없다.

결혼 4년 차 ‘워킹맘’ 김단빈은 ‘할 말은 하는’ 성격이지만 그에게도 시댁은 어렵다. 그녀가 “빨리빨리 오라”는 시어머니 전화를 아침에만 5통 받는 사이 남편 김진민은 그저 TV만 본다. 늦게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독설을 듣는 것도 아들이 아



왼쪽부터 민지영, 박세미, 김단빈.

닌 며느리의 몫이다. 결국, 그녀는 잠았던 눈물을 쏟는다.

세 가정의 모습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시댁에서 여자는 끊임 없이 ‘과대 기능’을 하고, 남자는 ‘과소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남편은 더 정적인 존재로 남는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뿐만 아니라 최근 비슷한 작품이 장르 구분 없이 주목받는다. 웹툰 ‘며느라기’,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가 대표적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게 변했지만 여전히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백년일꾼’인 데 대한 반응이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불공평함에 답답하고, 함께 화내주는 MC들의 반응에 통쾌하다. 다만, 패널 중 전문가가 있음에도 분석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해 기존 코부감들을 다른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다소 아쉽다.

프로그램을 만든 스튜디오에이코원의 박지아 본부장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출연진의 반응을 보여주는 데 일 단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비추지 못한 모습들을 조명하는 게 연출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분석과 대안 제시는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용준·박수진 부부 둘째 득녀

“산모·아이 모두 건강해요”

배우 배용준(46)·박수진(33) 부부가 둘째를 얻었다. 딸이다.

배용준·박수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박수진이 10일 새벽 딸을 낳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용준·박수진은 2015년 7월 결혼했으며, 이듬해 10월 아들을 낳고 부모가 됐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억주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2018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오克蘭드아슬레틱스-LA다저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추리의 여왕 시즌2(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속보이는TV 인사이드(재)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판다랑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세상 끝까지 와우 스페셜 55 TV속의 TV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뉴스콘서트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톤이치 15 영동발달공순이와 친구들 4 30 강학추천 배틀 트립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리라 55 지식 토크쇼
7	00 KBS 뉴스 7 35 2018 영암왕인문화축제 KBS라이브뮤직쇼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썬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뮤직뱅크 인 칠레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싱글와이드 P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세상의 모든 다큐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물랑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 역만장자)	09:40 글로벌 애매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말랄라 뿌우(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홍두깨살 찹나물볶음과 육전)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두다다콩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2:00 EBS 정오 뉴스	18:00 생방송 특집! 보니하니1~4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10 EBS 초대석	19:00 몬카트(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3:00 지식채널e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환산성의 비밀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30 EBS 뉴스
08:30 최장집사, 미니특공대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9:50 아빠
08:45 말랄라 뿌우	14:30 너티니즈	
09:00 똑딱맨	15:00 호기심 소녀 노트	
09:15 엄마 까투리	15:15 파파리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1일 (음 2월 26일 癸酉)

子	36년생 적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48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0년생 만세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보인다. 72년생 파도가 높으니 배를 띄우면 아니 되겠다. 84년생 가법계 통과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4, 20	午	42년생 반복되는 형상이다. 54년생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험을 살려라. 66년생 깊어지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78년생 뒤 돌아보는 것이 순리이다. 90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0, 52
丑	37년생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 49년생 분명하게 유념하여야 뒤 떨어지지 않는다. 61년생 생기발달한 판도가 조성되리라. 73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쉽게 융합할 수 있다. 85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34, 64	未	43년생 주의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5년생 소신을 갖자. 67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하는 시기이다. 79년생 당장의 이득은 적어도 가까운 시기에 결점으로 이어지겠다. 91년생 사랑이 깊은 이는 미움 또한 깊은 법이다. 행운의 숫자 : 80, 83
寅	38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행통 하리라. 50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지 말고 자유롭게 펼쳐라. 74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리라. 86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50, 14	申	44년생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56년생 전전긍긍하는 형태이다. 68년생 그 자체로써의 의미에 만족하라. 80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 되어질 수도 있다. 92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진땀을 빼겠다. 행운의 숫자 : 47, 85
卯	39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된다. 51년생 어렵잡아도 지장이 없다. 63년생 이체로든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75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결단은 바람직하다. 87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63, 87	酉	45년생 의외의 요인에 의한 자질이 보인다. 57년생 주변의 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판도이다. 69년생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리라. 81년생 삼가지 않으면 사면초가에 놓일 것이다. 93년생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2, 05
辰	40년생 갈수록 길조가 비추는 동량이나 생선적인 정황이다. 52년생 대범하게 넘겨 버리면 그만이다. 64년생 술선수범 한다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니라. 76년생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문제가 수습될 것이다. 88년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42, 95	戌	34년생 어려움은 닦쳐도 지혜는 썩는다. 46년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8년생 당해 보면 알 수 있다. 70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패념치 말라. 82년생 일상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10
巳	41년생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격이다. 53년생 감당할 만 하리라. 65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겠다. 77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라. 89년생 제 몫을 확실히 해낼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71, 70	亥	35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다. 47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59년생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71년생 부담감을 느꼈다면 지체하는 것이 알차다. 83년생 권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03,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